4. 결론

마태의 주요 목적은 그의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야임을 증거하는 것이었다. 즉 예수 그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야라는 사실이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예수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마태는 구약의 컨텍스트에 충실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으로써 온 세계의 통치자로서 그러나 비천한 배경과 멸시받는 삶과 겸손의 성품으로 임하시는 메시야이심을 예수의 탄생과 성장을 통해 확실히 증거하고 있다. 구속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되 이 역사는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부분적 과거론'과 '이상주의' 비교

How to Read the Book of Revelation?: Comparison between the Partial Preterism and the Idealism

송영목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들어가면서 ※ 68
2.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 ※ 68
2.1. David Chilton ※ 69
2.2. James B. Jordan ※ 72
2.3. Kenneth Gentry ※ 75
2.4. Keith A. Mathison ※ 78
3. 이상주의적 해석 ※ 81
3.1. William Hendriksen ※ 82
3.2. Grant R. Osborne ※ 85
3.3. Simon J. Kistemaker ※ 88
3.4. Dennis E. Johnson ※ 91
4. 이 두 해석 방법의 유사점 ※ 94
5. 이 두 해석 방법의 차이점 ※ 95
6. 나오면서 ※ 97

요 약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부분적 과거론'과 '이상주의' 비교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진영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부분적 과거론'과 '이상주의적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19세기까지 계시록의 지배적인 해석 경향이었고, 후자는 19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힘을 얻고 있는 방식이다. 이 둘은 접촉점이 없이 충돌하고 병행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호 보충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결합 혹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 글에서 이 두 해석 방법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주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의 범위를 계시록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들(시간적 표현, 사단의 삼위일체, 음녀 바벨론, 7인-7나팔-7대접 재앙 시리즈, 천년왕국, 신천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로 제한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장로교와 관련이 많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Calvin Theological Seminary,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수학했거나 가르친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두 견해에 대해서 필자의 비평을 다른 학자들을 인용하여 첨가할 것이다.

주요어
계시록, 부분적 과거론, 이상주의, 주석, 적용

How to Read the Book of Revelation?: Comparison between the Partial Preterism and the Idealism

Abstract

How to Read the Book of Revelation?: Comparison between the Partial Preterism and the Idealism

Prof. Dr. Young-Mog Song

In the Evangelical or Reformed circle, there are two major categories of interpreting the Book of Revelation, namely the partial preterism and the idealism. The former interpreting Revelation in terms of the situation of John the apostle and the first recipients was the overruling interpretive principle until the 19th century. The latter has become the dominant principle since the 19th century and interprets Revelation in the light of the conflict between God(or Church) and Satan(or evil power). Is there any contact point between these two interpretive methods? In other words, is it possible to integrate them in order to attain more correct meaning of Revelation? In this paper, the current researcher probes the opinions of the two camps. The scope of research is confined to the passages which are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book of Revelation, for instance, the time expressions, the satanic trinity, the harlot Babylon, 7seals-trumpets-bowls, millennialism, the New Heaven and Earth, and the New Jerusalem. In this paper the focus falls on scholars involved in the reformed seminaries in the US, which are intimately connected with the Presbyterian Churches in Korea, namely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Calvin Theological Seminary,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and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 Where necessary, the current researcher provides critical evaluations on the opinions proposed by the two camps. The conclusion reached is that partial preterism is proper for the exegesis of Revelation. However, idealism is useful for application of the message.

Keywords

Revelation, partial preterism, idealism, exegesis, application

1. 들어가면서

문자적이고 미래적인 해석 경향을 띠는 세대주의와 전 천년주의를 제외한다면, 복음주의 혹은 개혁주의 진영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방식은 크게 '부분적 과거론'과 '이상주의적 해석'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19세기까지 계시록의 지배적인 해석 경향이었고, 후자는 19세기 이후로 지금까지 힘을 얻고 있는 방식이다. 이 둘은 접촉점이 없이 충돌하고 병행만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호 보충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결합 혹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가? 이 글에서 이 두 해석 방법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주장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비교의 범위를 계시록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본문들(시간적 표현, 사단의 삼위일체, 음녀 바벨론, 7인-7나팔-7대접 재앙 시리즈, 천년왕국, 신천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로 제한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장로교와 관련이 많은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Calvin Theological Seminary,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에서 수학했거나 가르친 학자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 두 견해에 대해서 필자의 비평을 다른 학자들을 인용하여 첨가할 것이다.

2. 부분적 과거론적 해석

'부분적 과거론'(partial preterism)은 계시록의 대부분의 내용을 과거 즉 요한 당시에 성취된 것으로 보지만, 일부 내용은 미래적 성취와 연관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따라서 '부분적 과거론'이라는 용어보다는 '부분적 미래론'(partial futurism)이라는 이름이 더 적

절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분적 과거론은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와 육체적 부활 및 최후 심판까지도 이미 AD 70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이단 사상인 '완전히 실현된 과거론'(완전과거론, 철저과거론, fully realized preterism)과 다르다.[1] 이 글에서는 미국 텍사스 주의 Tyler시를 중심으로 전개된 'Christian Reconstructionism'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신학자인 D. Chilton, J.B. Jordan, K. Gentry 그리고 K.A. Mathison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이들은 모두 계시록이 AD 70년 이전, 즉 네로 박해시기에 기록 된 것으로 보면서 이른 시기를 주장 한다.

2.1. David Chilton

---

* 송영목 교수는 고신대 신학과(B.A.) 및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고, 포챕스트룸대학교(Th.M.)와 요하네스버그대학교(Ph.D.)에서 신약학을 공부했다. 2008년 2학기부터 고신대 신학과에서 전임으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다. 현재 '단권 신약 주석'과 '신약의 구약 사용'을 집필 중이다.

1) 예수님의 성육신과 파루시아를 '언약 구속사의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완전 과거론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백성 즉 유대인이 살던 '옛 세상 안'으로 오셨다(요 1:11), 환언하면, 예수님은 '세상 끝' 즉 유대교로 대변된 옛 세상(시대)이 사라질 무렵에 성육신하셨다(히 9:26). 예수님은 '이 세상' 즉 '아래 세상'(the world below)인 옛 언약 세상(the Old Covenant cosmos)과는 아무 분깃을 주장하지 않으셨다(요 8:23).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을 '육체를 따라' 즉 옛 언약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즉 메시아의 약속이 성취된 새 언약 세상(the New Covenant cosmos)의 관점으로 이해해야 한다(고후 5:16). 예수님의 승천은 옛 세상인 유대인의 시대로부터 떠나버림이다. 마 24:14의 '온 세상'은 사람이 살고 있는 우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버리신 아래로부터의 세상인 '유대인의 시대'(the Jewish age)로 본다. 그리고 마 28:20의 '세상 끝 날까지'를 '그 시대의 끝 까지'('to the end of time'이 아니라, 'to the close of the age')로 보면서 마 24:3의 'the end of the age'([옛 세상인 유대인] 세대의 끝)와 병행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의 기간은 옛 세대가 종결되고 새 세대가 도래하는 변혁이 완성될 때 까지다. 이 세대들의 변혁의 과정을 막 16:20이 생생하게 묘사 한다. King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최종 파루시아로 인해서 유대인의 옛 세대가 종막을 고하고 새 언약 시대가 온전히 임한 시점은 AD 70년이다. 구속사의 '성취'가 아니라 '완성' 사건인 AD 70년에 사 65:17-19가 예언한 신천지가 도래했다. 보라. M.R. King, *The Cross and the Parousia of Christ: the Two Dimensions of One Age-Changing Eschaton*, Ohio: Writing and Researching Ministry, 1987, 376, 689-690. 그리고 J.S. Russell, *The Parousia: a Critical Inquiry into the New Testament Doctrine of Our Lord's Second Coming*, Bradford: Kingdom Publications, 1878(1996), 380.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한 Chilton은 40대 중반의 짧은 생을 살았는데, 계시록 주석 "The days of vengeance" (1987년, 3판은 1990년)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 한다.

(1) 시간과 관련 된 구절

(a) 계시록 1:1, 3과 22:6

반드시 속히 될 일과 때가 가깝다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계시록이 세계 역사 전체 혹은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요한과 그의 독자들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과 관계 된다는 점이다.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예언하는 데, 그것은 물리적인 우주의 파괴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돌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옛 세상 질서의 종말이다. 하나님의 집인 신약 교회가 거의 완성되었기에, 하나님의 옛 임시 처소는 사라져야 한다.[2]

(b) 계시록 1:7

계 1:7은 계시록의 주제를 알리는데, 그것은 주님의 최종 재림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하러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즉 천상의 전차(보좌)는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과 관련 된다(창 15:17; 출 13:21-22; 시 18:8-14; 사 19:1; 겔 32:7-8; 나 1:2-8; 마 24:30; 행 2:19).[3] 그는 묵시적 용어로 묘사된 마 24:30의 팔레스틴에 임할 재앙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를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적으로 올바로 주석한다.

2) D.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Tyler: Dominion Press, 1990, 51, 55.
3)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64.

(c) 계시록 1:19

요한이 '본 것들'(*ha eides*, things that you saw)은 인자 예수님이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7별을 오른 손에 쥐고 계신 것이다. '지금 있는 일들'(*ha eisin*, what they are= what they signify)은 7별과 7촛대가 의미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ha mellei genesthai*, things that are about to happen)은 1절에서 밝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4]

(2) 사단의 삼위일체(계 13)

계 13:1의 바다짐승은 혼돈과 반역의 집단으로서 교회를 박해한 로마제국을 상징 한다.[5] 열 뿔은 로마 제국의 10주의 통치자들을(17:12), 7머리는 황제의 가문을 가리킨다(17:9-11). 11절의 땅 짐승은 유대의 거짓 종교 지도자를 상징 한다 (참고. 마 24:5).[6]

(3) 음녀 바벨론(계 18)

구약에서 음녀는 거의 대부분 언약을 저버리고 거짓 신에게로 돌아간 국가나 도시를 상징 한다. 여기서는 요한 당시의 거짓 교회인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음녀를 교황이나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은 주석이 아니라 '적용'이다.[7]

(4) 인, 나팔, 대접 심판(계 6, 8-9, 16)

7인 재앙은 '작은 계시록'(little Apocalypse)이라 불리는 감람산

4)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78-79.
5)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327.
6)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336.
7)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362.

강화(마 24)에서 예언된 '전쟁과 국제 분쟁, 지진, 기근, 역병, 박해, 그리고 창조질서의 파괴'와 일치 한다.[8] 7나팔 재앙은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는 재앙의 연속인데 유대-로마 전쟁에서 파국을 맞이한다.[9] 7대접 재앙은 우선적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배교한 이스라엘이, 그리고 부차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연결된 이방 나라(로마제국)가 심판 받을 것을 상징적으로 그린다.[10]

(5) 천년왕국(계 20)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사역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정통 기독교회는 열방을 개종시키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승리하신 예수님 때문에 후 천년주의자처럼 교회는 승리하며 소망을 품어야 한다.[11]

(6)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계 21)

신천지는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시작되어 점차로 완성되어 가는 새로운 재창조된 세상 질서이지 물리적 세상은 아니다.[12] 새 예루살렘성은 종말론적인 신약 교회이다.[13]

2.2. James B. Jordan

8)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182. 그리고 역사비평가인 Mazzaferri도 요한이 거의 완전한 형태의 공관복음 전통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감람산 강화에 큰 관심을 보였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라. F.D. Mazzaferri, *The Genre of the Book of Revelation from a Source-Critical Perspective*, Berlin: Walter de Gruyter, 1989, 51.

9)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236, 245.

10)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405.

11)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496-8.

12)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538, 544.

13) Chilton, *The Days of Vengeance*, 545.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M.A.와 Th.M.을 마친 후 Central School of Religion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Jordan은 1999년 소책자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과 *Biblical Horizons*에 실린 연재 글(Studies in the Revelation, 2005)에서 계시록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설명한다.

(1) 시간과 관련 된 구절

(a) 계시록 1:1, 3과 22:6

유대인과 로마 사이의 전쟁(AD 66-70)이 아니라, 복음의 확장과 순교 및 성도의 신원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문자적 의미에서 성취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한다(1:3; 22:10).[14]

(b) 계시록 1:7

모든 '땅'(유대인의 땅, land)이 구름을 타고 오실(*erchetai*, 혹은 '가실') 예수님을 볼 것(깨달으며 이해할 것)이다(1:7). '구름을 타고'는 지상으로 임할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고, 단 7:13에서 암시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 가심을 의미한다. 즉 계시록은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의 나라를 시작하셨는가를 보여준다.[15]

(2) 사단의 삼위일체(계 13)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부 하나님의 모사(counterfeit)이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모사이다.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성부 하나님의 '수'이듯이 유대 땅에서 나온 짐승(구체적으로 헤롯 왕조와 대 제사장)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이름이요

14) J.B. Jordan,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 Niceville: Transfiguration Press, 1999, 13.

15) Jordan,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 20.

수이다.[16] 그 바다짐승은 이방인들이고 그 수는 유대인이다. 666은 네로 황제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숫자는 유대인의 수로서 종교지도자와 거짓 솔로몬의 수이다.[17] 바다짐승의 '7머리'는 단 7장에 근거해 볼 때, 갈대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헬라적 이집트, 헬라적 시리아, 헬라적 로마, 사단적 로마를 가리킨다. 그리고 열 뿔은 머리들에 의해서 상징화되어지는 제국들의 통치자들이다.[18]

(3) 음녀 바벨론(계 18)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 도시 그 이상을 의미한다. '옛 창조의 제사장적 백성의 중심지'인 바벨론-예루살렘은 거룩한 땅 전체와 할례 받은 자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해당된다.[19]

(4) 인, 나팔, 대접 심판(계 6, 8-9, 16)

7인, 7나팔 그리고 7대접은 같은 사건들을 반복한다는 주장은 잘못이다. 7인은 두루마리를 개봉하고, 7나팔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선포하고, 7대접은 그 내용의 적용이다. 역사적으로, 7인은 AD 30년의 하나님 나라와, 7나팔들은 오순절로부터 유대인의 세대(즉 옛 창조 세계)의 끝인 AD 70년 직전의 시기와, 7대접들은(AD 70년을 정점으로 하는) 마지막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그 시작과 중간과 끝에 있어서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인, 나팔 그리고 대접 사이에는 많은 병행이 있다.[20]

16) Jordan,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 47. Jordan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숫자로 보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다. 참고로 성경에서 삼위 하나님의 수는 3이다.
17) Jordan,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 36.
18) J.B. Jordan, *Studies in the Revelation*(이동수 옮김, 『계시록의 구속사적 연구』, 서울: 그리심, 2005, 144, 156)
19) Jordan,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 43.

(5) 천년왕국(계 20)

옛 세상이 심판을 받은 AD 70년에 천년왕국이 시작된다.[21] 솔로몬의 성전 건축부터 AD 70년까지는 약 1000년의 기간이다. 이것이 첫 번째 천년왕국인데, 더 큰 천년왕국(AD 70-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그림자이다.[22]

(6)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계 21)

신천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통치 상'의 그 무엇으로서, 예수님의 승천 때 임했다. 그 이유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이다. 점진적으로 임하는 신천지가 완전히 임하는 것은 성도가 하늘 보좌 위의 예수 그리스도께 동참할 때이며, 사단이 파멸될 때이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실재이며 오순절 이래로 새롭게 되어가는 신부이다.[23]

2.3. Kenneth Gentry

Gentry는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M. Div.를 마친 후,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의 박사학위 논문을 "Before Jerusalem fell: dating the book of Revelation"(1989)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그는 그 책을 계시록의 초기 연대 주창자인 Greg L. Bahnsen에게 헌정했다.

20) Jordan,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 26.
21) AD 70년이 신약의 계시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천년왕국을 도래시킨 예수님의 초림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신약)계시사의 두 축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며, 그 안에 전환기적 사건들로는 오순절 성령강림, 돌 성전의 파괴, 신약성경의 기록 등이다.
22) Jordan,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 48.
23) Jordan,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 50.

(1) 시간과 관련 된 구절

(a) 계시록 1:1, 3과 22:6

dei genesthai en tachei(반드시 속히 일어날, 1:1; 22:6)는 (미래에)갑자기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것들'(NIV: must soon take place 혹은 NASB: must shortly take place)을 뜻한다(참고. 눅 18:8; 롬 16:20; 행 10:33; 12:7; 딤전 3:14).[24] *engys*(*en*[in]+*gyion*[hand] 즉 'at hand', 1:3; 22:10)를 시간적으로 가까운 사건을 가리킬 때 사용 된다(참고. 마 24:32; 26:18; 요 2:13; 11:55; 7:2). 혹자는 계시록의 독자를 박해하던 로마 제국이 수 백 년 후에 멸망하는데 어떻게 때가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 하지만 "때가 가깝다"를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약 20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로 보는 것은 더 이해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때가 가깝다'는 계시록의 기록 시점에서 수년 내에 일어나야 할 일이라는 점이다.[25]

(b) 계시록 1:7

간본문들인 감람산 강화(마 24:30; 26:64)와 구약 시가서와 선지서들(시 18:7-15; 사 19:1; 욜 2:1-2; 나 1:2 이하; 습 1:14-15)에 근거하여 '구름타고 오시는 것'을 예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 물론 행 1:11과 살전 4:13 이하는 세상 역사의 끝에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의 최종 파루시아를 언급 한다.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볼 '찌른 자들'과 '땅의 족속들'(*hai phylai tes ges*)은 불신 유대인들(12지파)이며(참고. TDNT, 9:246; 그리고 간본문으로서 이스라엘 땅의 12지파를 언급하는 슥 12:10), 로마제국은 행정적이고 부차적으로 연관 된다.[26] 일면 계시록은 감람산 강화의 주석이다(참고. F.W. Farrar, J.S. Russel).[27]

(c) 계시록 1:19

'속히 일어날 일들'은 *melle*동사가 아오리스트 부정사(*genesthai*)와 함께 사용되어 'the things which are about to come'으로 번역 되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리킨다(참고. 계 3:10).[28]

(2) 사단의 삼위일체(계 13)

바다짐승은 네로를 정점으로 하는 로마제국을, 7머리는 로마제국의 첫 일곱 황제들을 가리킨다.[29]. 땅 짐승은 유대인과 관련 있다.[30] 666은 네로를 가리킨다.[31]

(3) 음녀 바벨론(계 18)

로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음행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도를 핍박하고 죽인 예루살렘이다(계 11:8; 14:8; 16:6; 17:5-6; 18:21, 24; 마 23:34-48; 눅 13:33; 행 7:51-52).[32] 음녀가 탄 7머리를 가

24) K.L. Gentry Jr., *Before Jerusalem Fell: Dating the Book of Revelation*, Tyler: ICE, 1989, 138.

25)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141. 계시록 수신자의 1차 박해자는 불신 유대인이다(계 2:9; 3:9). 그들에게 심판은 물리적으로 속히 AD 70년에 임했다. 2차 박해자인 로마 제국에게는 AD 68년 네로 자살 이후 로마제국에 닥친 내전과 혼란 기간(AD 68년 6월에서 69년 12월) 동안, 별 다른 박해 없이 복음이 전파된 것으로 영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AD 64-68년 동안 네로가 박해를 일삼았다.

26)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123, 129.

27)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130-1.

28)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141.

29)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240, 277.

30)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240.

31)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203, 215.

32)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240-1.

진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던 로마제국이다(참고. 마 23:37 이하; 요 19:16; 행 17:7).[33]

(4) 인, 나팔, 대접 심판(계 6, 8-9, 16)

계시록이 배교한 유대인에 대한 심판을 주로 다루기에, 유대-로마 전쟁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옛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의 전진을 살펴야 한다.[34]

(5)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계 21)

새 예루살렘 성은 음녀 바벨론과 대조되는 하늘의 예루살렘 신부이다.[35]

2.4. Keith A. Mathison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에서 수학한 후,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종말론 전문가 Mathison은 "Postmillennialism: an Eschatology of Hope"(1999)에서 자신의 요한계시록 이해를 간략히 언급한다.[36]

(1) 시간과 관련 된 구절

(a) 계시록 1:1, 3과 22:6

요한은 자주 예수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말한다(1:1, 3, 19; 2:16; 3:10-11; 22:6-7, 10, 12, 20). 이 구절들 중 어떤 것도 계 1:7의 오심이 수 천 년 후에 일어날 것을 가리키지 않고, '임박한 오심'(impending coming)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귀 이후 한 세대가 지난 시점에 구속사적 그리고 언약적으로 중요성을 가진 그리스도의 유일한 오심인데, 바로 로마 군대에 의해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AD 70년 사건이다.[37]

(b) 계시록 1:7

계 1:7의 '예수님의 승귀 하심'이라는 주제가 계시록의 여러 구절에 나타난다(계 2:5, 16, 25; 3:3, 11; 16:15; 22:7, 12, 20). 하나님이 현재적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구절은 구약과 신약에 산재해 있다(참고. 시 18:7-15; 104:3; 사 19:1; 나 1:2-8; 마 24:4-34). 예수님을 찌른 자들이 살아 있을 때 승귀 하신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마 24:34; 막 13:30; 눅 21:32).[38]

(2) 사단의 삼위일체(계 13)

바다짐승은 일반적으로는 로마를 구체적으로는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 짐승의 일곱 머리(13:1)는 황제들의 계통(the line of the Caesars)이다(참고. 17:9-11). 짐승의 10뿔(13:1)은 제국의 주들의 통치자들(governors of the imperial provinces)이다(참고. 17:12).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불리는데(16:13; 19:20; 마 24:5, 11),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동시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로마 황제 숭배를 장려한 팔레스틴의 로마 총독 Gessius Florus와 같은 인물이

33)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241.
34)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132, 240.
35) Gentry, *Before Jerusalem Fell*, 241.
36) Mathison은 최근에 "From Age to Age: the Unfolding of Biblical Eschatology"(2009)를 출판했다.
37) K.A. Mathison, *Postmillennialism: an Eschatology of Hope*, Phillipsburg: P&R, 1999, 145.
38) Mathison, *Postmillennialism*, 143-4.

다. 참고로 '666'(13:18)은 네로를 가리킨다.[39]

(3) 음녀 바벨론(계 18)

소돔과 애굽처럼 영적으로 타락한 '음녀 신부'(harlot bride)는 예루살렘이다(계 11:8; 14:8; 참고. 사 1:21; 렘 2:20-24; 겔 16, 23; 호 9:1).[40]

(4) 인, 나팔, 대접 심판(계 6, 8-9, 16)

7인의 재앙은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다.[41] 7나팔과 대접 재앙은 출애굽 시의 10재앙을 연상시키는데, 유대-로마 전쟁에서 성취되었다.[42]

(5) 천년왕국(계 20)

1000년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상징 한다.[43] 1000년 왕국 동안 사단은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파멸되었으나, 죄와 사단의 세력은 주님의 최종 파루시아 때 까지 여전히 활동 중이다.[44]

(6)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계 21)

신천지는 전적으로 현재적 일도 아니며, 그렇다고 전적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신천지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점진적인 성취로 보아야 한다.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 한다.[45]

39) Mathison, *Postmillennialism*, 152.
40) Mathison, *Postmillennialism*, 153.
41) Mathison, *Postmillennialism*, 148.
42) Mathison, *Postmillennialism*, 150, 153.
43) Mathison, *Postmillennialism*, 155.
44) Mathison, *Postmillennialism*, 156.

3. 이상주의적 해석

'이상주의적 해석'(idealism)은 계시록의 내용을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계시록의 내용(예언)을 요한 당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 까지를 아우르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위대한 도덕적인 원칙을 모든 시대의 성도에게 제공한다고 본다.[46] 이상주의자들이 이렇게 보는 해석하는 이유는 '묵시사상'의 한 가지 특징인 악한 현재의 시대와 구원의 미래의 시대를 날카롭게 나누어 역사를 선과 악의 대결로 보는 관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글에서는 Grand Rapids의 Baker출판사를 통해서 출판된 W. Hendriksen, G.R. Osborne, 그리고 S.J. Kistemaker의 주석을 중심으로 하되, D.E. Johnson의 주석도 함께 살펴 볼 것이다. 이들은 모두 계시록을 도미티안의 박해시기에 기록 된 것으로 보면서 후기 연대를 주장 한다.[47]

45) Mathison, *Postmillennialism*, 157. 참고로 부분적 과거론을 위해서 다음의 주석이 유용하다. C. Van der Waal, *Openbaring van Jesus Christus: Inleiding en Vertaling*, Groningen: Uitgeverij de Vuurbaak, 1971(Volume II, 1981).
46) 이 이유로 이상주의적 해석은 자칫 고대의 알레고리 해석으로 빠질 수 있다. 참고. Mazzaferri, *The Genre of the Book of Revelation from a Source-Critical Perspective*, 34.
47) 계시록의 후기 연대를 주창한 Ladd는 AD 1세기 후반에 도미티안 황제가 크리스챤을 공개적이고 전면적으로 박해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마 도미티안의 박해는 간헐적이었을 것이다(참고. Dio Cassius, Roman History, 1:xxiii). 보라. G.E. Ladd, *A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1978, 8.

3.1. William Hendriksen

1975년에 출판된 계시록 주석 "More than conquerors"를 썼고 이전에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가르쳤던 Hendriksen(Th.D.,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은 한국 독자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후기 기록 연대를 따르는 그는 계시록의 주제를 계 17:14에 근거하여 사단과 그의 추종자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로 본다.[48] 따라서 계시록 해석은 요한 당시의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에서 출발해야 하지만, 계시록은 모든 세대의 성도에게 해당되도록 의도되었다고 본다.

(1) 시간과 관련 된 구절

Hendriksen은 계시록을 이등분 한다: 1부- 지상에서의 투쟁(계 1-11). 2부- 보다 깊은 영적 배경(계 12-22).

(a) 계시록 1:1, 3과 22:6

'속히'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하나씩 연속적으로(in rapid succession)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 '속히'와 "때가 가깝다"라는 표현과 의미는 미래주의적 해석에 치명타를 안겨준다.[49] 이 주장에도 불구하고 주석을 해 가면서 Hendriksen은 신약 교회 전체 시대에 맞추어 해석함으로써 미래적 해석을 도입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b) 계시록 1:7

48) W.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김영익 옮김, 『요한계시록』, 서울: 아가페출판사, 1975, 9, 25)
49)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57.

이 구절은 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아니지만, 도미티안에 의해 박해 받던 성도에게는 위로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통보이다. 재림의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심판하러 오신다(단 7:13; 슥 1:15; 막 14:62; 계 14:14).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게 될 것이다(슥 12:10; 요 19:34, 37). 불신자들은 재림의 때에 절망하며 애곡할 것이다.[50] 참고로 Hendriksen은 '한 때, 두 때, 반 때', '42개월', '1260일'을 예수님의 초림-재림 사이의 전체 교회 시기 즉 천년왕국으로 해석 한다.[51]

(c) 계시록 1:19

요한은 1장에서 본 인자의 환상인 '네가 본 것'과, 7교회 당시의 상황인 '이제 있는 일'과, 그 후 모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인 '장차 될 일'을 기록해야 한다.[52] 따라서 Hendriksen은 미래의 일을 요한 당시 이후의 전체 교회에게 적용 한다.

(2) 사단의 삼위일체(계 13)

바다짐승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땅의 나라들과 그 나라의 정부를 통하여 작용하는 사단의 핍박의 권능을 가리킨다. 따라서 바다짐승의 7머리는 역사상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던 구 바벨론, 앗수르, 신 바벨론, 메데와 바사, 마게도니아, 로마 제국과 같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다. 13:3의 바다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을 박해자 네로가 자살 한 후 네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 되어 도미티안 때 박해가 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본다. Hendriksen은 계시록을 모든 시대에 걸쳐 해석하기

50)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60.
51)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73, 179.
52)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65.

에, 비록 후기 기록 연대를 주장하지만 네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땅 짐승은 이 세상의 거짓 종교와 거짓 학문을 상징한다. 요한은 1세기 마지막 10년(AD 90-100) 동안에 이 두 짐승이 취한 핍박의 형태를 의미하는 용어로 묘사 한다.[53] Hendriksen이 바다짐승에서는 모든 시대의 적그리스도 나라와 세력의 핍박을 찾고, 땅 짐승에서는 AD 90-100년으로 한정하는 듯한 주석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독자로 하여금 혼동을 초래한다.

(3) 음녀 바벨론(계 18)

바벨론은 유혹의 중심지인 세상을 상징 한다.[54] 구체적으로 바벨론은 산업, 상업, 예술, 문화의 중심으로서의 세상인데, 성도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것을 상징 한다.[55]

(4) 인, 나팔, 대접 심판(계 6, 8-9, 16)

이 세 재앙 시리즈는 요한 당시에만 제한되지 않고 여러 세대에 해당 된다.[56] 참고로 Hendriksen은 감람산 강화의 자체 문맥과 전환을 이해하는데 실패하여, 마 24:29-30을 예수님의 최종 파루시아 직전의 환난으로 본다.[57] 7인 재앙은 고통과 환난의 시대에 대한 상징인데,[58] 감람산 강화에서 말한 세상 종말과 연결 된다.[59] 따라서 여기서 Hendriksen은 음녀 바벨론이 아니라, 교회가 당하는 고통과 환난에 초점을 맞춘다. 7인과 동시성을 가지는 나팔 재앙은 사건의 연속으로,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일어날

53)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76-7.
54)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88.
55)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205-6.
56)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0.
57)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0.
58)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10.
59)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16.

수 있는 재앙을 가리킨다.[60] 7대접 재앙은 신약 세대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때 전체 우주의 모든 부분을 도구로 사용하심을 보여 준다.[61] 7대접 재앙은 음녀 바벨론이 받을 최후의 심판이다.[62] 참고로 계 16:15도 최종 파루시아로 본다.[63]

(5) 천년왕국(계 20)

예수님의 초림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었고, 그 후 일시적으로 사단이 풀려나서 활동하지만 재림으로 인해 완성 된다.[64]

(6)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계 21)

계 21:1-22:5는 회복된 낙원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현재의 구속받은 교회에 의해 예표 되는 장차 구속받을 우주에 대해 묘사 한다. 그리고 신천지는 옛 세상이 불로 타서 정화된 물리적인 새로운 세상을 의미 한다.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장소성'을 의미하지 않고, 이상적인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이다(보라. 교회가 '성'으로 묘사된 사 26:1; 54:1; 엡 5:32).[65]

3.2. Grant R. Osborne

2002년에 Baker 신약 주석 시리즈 중 계시록 주석을 쓴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의 신약학 교수인 Osborne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60)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37.
61)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198.
62)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202.
63)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202.
64)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228.
65) Hendriksen, *More than Conquerors*, 244-6.

(1) 시간과 관련 된 구절

(a) 계시록 1:1, 3과 22:6

'역사의 임박한 종말'이 계시록의 핵심이다. '속히'를 '갑자기'(suddenly)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갑자기' 대신에 '임박함'으로 이해한다면 요한 당시로부터 약 1900년이 지난 시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라는 어려움이 있다. 로마에 의한 교회의 박해가 임박했다고 보지 말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참고. 눅 18:8; 롬 16:20; 벧전 4:7)처럼 이해하면 된다고 주장 한다.[66]

(b) 계시록 1:7

예수님을 찌를 자들은 타락한 모든 사람들 즉 영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인들 전체이다. 막 13:26과 살전 4:17과 연관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이다.[67]

(c) 계시록 1:19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 있을 것은 각각 1장의 개시 환상, 2-3장의 편지, 4-22장의 환상을 가리키지 않고, 계시록 전체의 종말론적 관점과 서로 연결 된다. 왜냐하면 계 2-3장은 현재(즉 요한 당시)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계 4-19장의 환상도 과거-현재-미래의 면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68]

(2) 사단의 삼위일체(계 13)

바다짐승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제국을 이끌 적그리스도이다.[69] 땅 짐승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이단 즉 적그리스도로서 사람들을 배교로 인도 한다(참고. 살후 2:3; 요일 2:18; 4:1-3).[70]

66) G.R. Osborne,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2002, 54.
67) Osborne, *Revelation*, 70.
68) Osborne, *Revelation*, 97.

(3) 음녀 바벨론(계 18)

계 18장의 광범위한 무역과 물품들을 고려해 볼 때, 음녀 바벨론은 예루살렘이라기보다는 불경건한 로마제국으로 보는 것이 더 적합하다.[71]

(4) 인, 나팔, 대접 심판(계 6, 8-9, 16)

7인은 죄악 하에 있는 현재 세상 질서를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보여 준다.[72] 7나팔은 고대 세계와 현대 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말한다. 7인과 7나팔을 강화시킨 7대접은 세상 역사의 종말적 사건들과 종말의 도래를 다룬다.[73]

(5) 천년왕국(계 20)

Osborne은 무 천년설과 후 천년설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전 천년설을 따른다.[74]

(6)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계 21)

새 예루살렘 성은 '최종적인 지성소'요 '최종적으로 회복되고 변혁 된 에덴'이다. 음녀 바벨론이 사람과 장소성을 동시에 가지고

69) Osborne, *Revelation*, 495.
70) Osborne, *Revelation*, 512.
71) Osborne, *Revelation*, 635, 697.
72) Osborne, *Revelation*, 298.
73) Osborne, *Revelation*, 357, 602.
74) Osborne, *Revelation*, 697.

있듯이, 새 예루살렘 성도 신부인 동시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이다(참고. 계 21:3, 7-8, 24, 26).[75] Osborne이 제시하는 장소성과 관련된 구절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인격과 교회의 사역으로 이해할 수 있다.

3.3. Simon J. Kistemaker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의 신약학 은퇴 교수인 Kistemaker(Ph.D., Free University)는 2001년의 계시록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시간과 관련 된 구절

(a) 계시록 1:1, 3과 22:6

'속히 일어난다'는 말의 한 가지 뜻은 성도를 향한 '박해'가 임박하게 임한다는 것이다. 과연 요한이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날 박해를 염두에 두었는지는 상당히 의문이다. 그리고 모든 시대를 거쳐,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알리신 것들이 진실로 일어났음을 경험했다. 따라서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약속된 재림을 열렬히 사모해야 한다.[76] 여기서 Kistemaker는 요한 당시의 관점에서 파악하지 않고 전체 교회 시대로 확장 시켜 적용한다. 때가 가깝다는 말은 요한 당시의 성도들이 살아 있을 때, 하나님과 사단,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령과 거짓 선지자들, 교회와 부도덕 사이의 다툼이 발생할 것을 가르쳐 준다. 따라서 모든 시대의 성도는 계시록의 메시지를 적용해야 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해야 한다.[77]

(b) 계시록 1:7

마 24:30과 관련된 것으로 예수님의 미래적인 재림을 가리키는데, 그것을 불신자와 신자들이 모두 볼 수 있다.[78]

(c) 계시록 1:19

요한이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있을 것'은 요한이 본 1장의 개시 환상이나 그 당시에 제한되지 않고 요한 당시로부터 우주적인 시간(cosmic time)까지의 전체 일들을 포함하기에,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에게 적용 된다.[79]

(2) 사단의 삼위일체(계 13)

단 7장과 간본문성을 보이는 바다짐승은 그리스도에 대해 적의를 품고 있는 세상의 권세이다. '거짓 선지자'라고도 불리는(계 16:13; 19:20; 20:10) 땅 짐승은 그리스도를 페러디하는데, 대중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쳐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세상적인 이론과 세속적인 철학을 가리킨다.[80] 7이 완전을 상징하기에, 반대로 불완전을 상징하는 6이 3개나 모여도(예. 666) 여전히 모방자에 불과한 사단의 불완전한 업적을 짐승의 숫자 666이 보여준다.[81]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숫자요 짐승의 숫자'라고 요한이 계 13:18에서 밝히기에 요한 당시의 짐승과 같은 어떤 사람(예. 네로)으로 보아야 한다.

75) Osborne, *Revelation*, 733, 776.
76) S.J.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NTC*, Grand Rapids: Baker, 2001, 77.

77)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79.
78)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86.
79)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102.
80)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378, 388.
81)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395.

(3) 음녀 바벨론(계 18)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은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 안에 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큰 성 바벨론은 어둠의 왕국의 중심지이며 '우주적인 사단의 세력'을 상징한다.[82]

(4) 인, 나팔, 대접 심판(계 6, 8-9, 16)

7인의 개봉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날 것이라기보다는 동시 다발적 사건인데, 성도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 시 까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암시 한다.[83]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흰 말 타신 분도 그리스도라면 어색하다. 따라서 흰 말을 탄자는 계 19장의 흰 말 타신 그리스도를 모방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다.[84] 그러므로 Kistemaker의 견해는 인 재앙의 초점이 하나님이 교회의 대적을 심판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가(비록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역사하지만) 적그리스도에 의해 고난을 당하는 것임을 암시 한다. 출애굽 시 10재앙을 연상시키는 7나팔 재앙은 역사상 특정한 시기 혹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가리키지 않고, 중생하지 못한 사악한 세상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세력을 보아야 한다.[85] 따라서 Kistemaker는 우선적으로 요한 당시의 상황에서 7나팔 재앙을 고려하지 않는다.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발생하는 16:14 이하의 아마겟돈 전쟁은 '우주적 시간의 종말'(at the end of cosmic time)에 일어날 궁극적인 대결(the ultimate conflict)을 가리키는

82)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455, 485.
83)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220.
84)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221, 223.
85)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284.

것으로 본다.[86]

(5) 천년왕국(계 20)

사단이 결박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아야 한다면 1000년 왕국도 예수님에 의해서 사단이 패배했으며,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87]

(6)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계 21)

신천지는 현재 세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완전히 변형되는 것이다.[88] 교회를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적 도시'인데,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친밀한 교제가 있다.[89]

3.4. Dennis E. Johnson

2001년에 계시록 주석을 쓴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California)의 실천신학 교수인 Johnso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시간과 관련 된 구절

(a) 계시록 1:1, 3과 22:6-7

'반드시 속히'는 계시록의 독자들을 위협하던 세력들에게 영향을 줄 일들이 속히 일어 날 것이다.[90] 계시록의 환상의 해석을

86)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450.
87)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534.
88)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555.
89) Kistemaker,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564.

전적으로 요한 당시를 넘어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 한다. 계시록이 AD 1세기를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현대 성도에게 교훈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며 '타당한 병행'(valid parallels)이 있다.[91] 계시록은 AD 1세기 관점에서 읽어야지, 21세기 관점에서 강압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92] 계시록이 신약 전체 시대를 배경으로 하여금 적합성을 가지기에, 필연적으로 '42개월, 1260일, 한 때 반 때 두 때'는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재림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상징 한다.[93]

(b) 계시록 1:7

지구 위의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모두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미래적 재림을 가리킨다(참고. 계 22:7, 12,

90) D.E. Johnson, *Triumph of the Lamb: a Commentary on Revelation*, Phillipsburg: P&R, 2001, 26.

91) Johnson, *Triumph of the Lamb*, 28.

92) Johnson, *Triumph of the Lamb*, 20-21. 또 다른 이상주의적 해석자인 빌라델비아 소재 웨스트민스터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인 Poythress는 '반드시 속히'를 소아시아의 7교회가 갈등의 모든 측면을 임박하게 경험할 것이며, 모든 시대의 교회가 이러한 영적 전쟁(spiritual war)을 겪고 있다고 주석함으로써, 요한 당시와 모든 신약 교회 시대를 혼용하고 만다. 이것은 '주석과 적용'을 혼용한 것으로서, 이상주의적 해석의 전형적인 오류를 보여준다. Poythress는 계 1:7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계 1:19의 요한이 본 것은 1:12-16 내용을, 지금 있는 것은 계 2-3장을, 앞으로 일어날 일은 계 4-22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계 13장의 바다짐승은 모든 시대의 사단화 된 국가와 같은 박해 세력을 상징하며, 성령의 모방자인 땅 짐승은 요한 당시에는 황제 숭배를 강요한 세력을 상징하며, 우리 시대에도 전제주의자에게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 Poythress는 '우주적 적용'(universal alloication)을 주장 한다. 음녀 바벨론은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다. 신천지는 포괄적인 혁신으로 재창조된 세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예수님의 복된 신부이다. 보라. V.S. Poythress, *The Returning King: a Guide to the Book of Revelation*, Phillipsburg: P&R, 2000, 70, 74, 81, 138, 143, 160, 185-6. 참고로 또 다른 웨스트민스터신학교 교수였던 J.E. Adams는 부분적 과거론자로서 계시록의 초기 연대를 주장하기에 계시록이 배교한 유대인과 이방 로마제국에 대한 심판을 다룬다고 본다. 그리고 그는 '성취된 천년왕국'(realized millennialism)을 계시록 이해의 기본 체계(basic system)로 인정한다. Adams는 부분적 과거론이 모든 시대의 교회에게 적합한 권면과 교훈을 준다고 올바르게 주장한다. 보라. J.E. Adams, *The time is at Hand*, Phillipsburg: P&R, 1966, 41, 46, 49.

93) Johnson, *Triumph of the Lamb*, 189, 289.

20).[94]

(c) 계시록 1:19

요한이 본 것은 현재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을 포함 한다. 요한은 자기가 본 것 즉(namely) 현재 있는 일(주로 계 2-3장)과 미래에 일어날 사건(계 4-22)을 기록해야 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이다(계 1:2).[95]

(2) 사단의 삼위일체(계 13)

바다짐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서 요한 당시에는 로마제국을, 땅 짐승은 로마제국의 황제 제의를 부추기는 소아시아의 세력이다.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킨다.[96]

(3) 음녀 바벨론(계 18)

음녀 바벨론은 교회를 억압하는 이방 세력으로서 요한 당시에는 로마제국으로 구체화 되었다.[97]

(4) 인, 나팔, 대접 심판(계 6, 8-9, 16)

1-4째 인은 현재적 사건을, 6번째 인은 역사의 절정 때에 발생하는 우주의 대 격변을 다룬다.[98] 계 6장의 네 말과 대부분의 나팔 재앙은 교만한 세상 문명(요한 당시에는 로마제국)을 파괴할 재앙을 상징하는데, 이 심판은 어린 양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진

94) Johnson, *Triumph of the Lamb*, 20-21.

95) Johnson, *Triumph of the Lamb*, 32.

96) Johnson, *Triumph of the Lamb*, 192, 196.

97) Johnson, *Triumph of the Lamb*, 206.

98) Johnson, *Triumph of the Lamb*, 118.

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자신의 대적을 정복하실 종말을 그림자로 보여 준다.[99] 7나팔 재앙을 마 24:6-8과 연결시키면서,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제한된 재앙으로 본다. 이 제한된 재앙은 7접시 심판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는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받을 최후 심판을 예기 한다.[100] 계시록의 연속적인 재앙들은 신랑이신 하나님이 신부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세력을 향해서 내리는 질투가 담긴 사랑의 표현이다.[101]

(5) 천년왕국(계 20)

그리스도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 전에 임한다고 믿는 무 천년주의를 지지한다. 계시록의 독자들이 겪은 고난은 역사의 종말에 있을 환난과 비교하면 가볍다.[102]

(6) 신천지와 새 예루살렘 성(계 21)

사 65:17과 66:22의 성취인 신천지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을 위한 새 집(new home)이다.[103]

4. 이 두 해석 방법의 유사점

99) Johnson, *Triumph of the Lamb*, 122.
100) Johnson, *Triumph of the Lamb*, 139, 224.
101) Johnson, *Triumph of the Lamb*, 302.
102) Johnson, *Triumph of the Lamb*, 284, 288-9.
103) Johnson, *Triumph of the Lamb*, 303. 미국의 이상주의와 거의 유사한 화란 개혁주의 진영의 이상주의적 해석을 보려면 다음 주석을 참고하라. S. Greijdanus, *De Openbaring des heeren aan Johannes*, Amsterdam: H.A. Van Bottenburg, 1925. 그리고 H.R. Van de Kamp, *Openbaring: profetie vanaf Patmos*, Kampen: Kok, 2000.

부분적 과거론자들 안에서도 세부적인 주석에서 차이가 난다(예. 바다짐승의 7머리, 10뿔). 이상주의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예. 숫자 666). 복음/개혁주의 진영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이 두 해석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다.

(1) 계시록의 상징을 해석할 때 외경을 의존하기 보다는 그 상징의 근원인 구약 구절을 중요하게 다루어,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적절한 상징적 의미를 찾는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이상주의적 해석가들의 주석이 숫자적으로 많고 충실한 반면, 부분적 과거론자들의 주석은 적고 따라서 그들의 계시록 연구 주제가 특정적이고 구체적이다.

(2) 문맥을 비교적 잘 고려한다. 예를 들어, 계 21장의 문맥을 고려하여 '새 예루살렘 성'을 성도가 사후에 갈 장소로 잘못 이해하는 경향은 거의 없다. 하지만 이상주의자는 감람산 강화의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3) 계시의 점진을 살핀다. 예를 들어, 7나팔의 재앙을 다룰 때 출애굽 주제의 빛으로 설명한다.

(4) 주로 반복이론을 따른다(예외. Jordan). 즉 '7중 구조'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계시록의 환상을 해석 할 때, 사도 요한이 동일한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절정을 향해서 종말론적인 강조를 가지고 '반복'(recapitulation)하는 것으로 본다.[104]

(5) 역사비평을 거부하고 사도 요한 저작성을 인정한다.

5. 이 두 해석 방법의 차이점

104) Johnson, *Triumph of the Lamb*, 46.

(1) 시간관: 부분적 과거론은 계시록의 시간적 표현을 잘 고려한다. 하지만 이상적 해석은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계시록의 시간관을 무시한다. 즉 '반드시 속히'는 물론 '1260일', '42개월'과 같은 표현도 예수님의 초림에서 시작하여 요한 당시를 거쳐, 예수님의 최종 파루시아 때까지 전체 신약 교회역사에 적용하려고 한다. 이상주의자들은 계시록의 상징이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의 구체적인 사건(one concrete embodiment)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하기에 전체 교회 시대로 확장함으로써 '보편적인 적용'(universal application)이라는 미로에 빠져 버렸다.[105] 부분적 과거론자와는 달리, 이상주의적 해석가들은 계시록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간본문인 감람산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예외 없이 감람산 강화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는데 실패 했다.

(2) 계시록의 기록 연대: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네로 황제 통치 시에 기록되었다고 보지만, 이상론자들은 도미티안 황제 때 기록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초기 연대 주창자인 Gentry의 계시록 연대 논의를 능가할 논리적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3)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했던 1차 주체: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소아시아 7교회를 박해한 1차 주범을 '배교한 유대인'으로 보지만(그리고 Anchor주석 시리즈 중 계시록 주석을 쓴 J.M. Ford 등), 이상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한 후에 기록 되었다는 후기 연대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 본다. 따라서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선적으로 불신 유대인에게 임하며, 부차적으로 로마 제국에게 임하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이상주의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그것이 구체화 된 로마 제국을 음녀 바벨론으로 보고, 그들에게 임하는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

(4) 천년주의: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승리의 후 천년주의를(그리고 M. Kik 등), 이상주의자들은 무 천년주의를 대체로 따르는 경향이 있다(예외. 전 천년주의를 따르는 Osborne와 '승리'를 주제로 보는 무 천년주의자 Hendriksen).[106]

105) Poythress, *The Returning King*, 78.

(5) 계시의 점진을 살필 때, 이상주의자들과는 달리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신약 안에서의 제 2성전의 파괴를 기점으로 하여 고려하여 유대교의 종말에 주의를 기울인다. 종말을 옛 세상인 유대교가 종식을 고하고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이 도래하는 것으로 본다.

(6) 신천지를 이상주의자들은 주로 새롭게 회복되고 완성된 물리적 세상으로 보지만,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승귀 하신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통치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7) 이상주의자들은 계 1장의 시간적 표현(속히 될 일, 때가 가깝다)을 주석하면서, 교회가 당할 임박한 어려움과 박해를 떠올린다. 하지만 부분적 과거론자들은 승귀 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대적에게 임박한 시간 안에 내리실 심판에 초점을 맞춘다.

(8) 큰 성 바벨론 음녀: 부분적 과거론은 불신 유대인으로, 이상주의는 우주적인 사단의 세력으로서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으로 구체화 되었다고 본다.

6. 나오면서

흥미로운 점은 이 글에서 소개된 학자들 모두 미국, 영국, 화

106) Gentry의 책의 서문을 쓴 ICE(Institute for Christian Economics)의 Gary North(1989, xiii)는 '후 천년주의의 지상적 종말론적 낙관주의'(postmillennialism's earthly eschatological optimism)가 '기독교 재구축주의자'의 모토가 되어야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경에 기초한 법적이고 윤리적인 청사진을 책임성 있게 적용하도록 한다고 주장한다.

란의 개혁주의 신학교에서 교육 받은 이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책도 개혁주의와 관련된 출판사들인 Baker, P&R, ICE에서 출판되었다. 양 진영의 많은 공통점과 접촉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평행선을 긋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진영은 독불장군식이 아니라 '개혁주의 비평적 실재론'(reformed critical realism; 참고. K. Vanhoozer, N.T. Wright 등)에 입각한 '인식론적 겸손'(humility of epistemology)과 '해석의 겸손'(humility of hermeneutics)이 필요하다.[107] 양 진영은 자신의 인식론과 전제 그리고 주석 방법을 비평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계시록 기록의 후기 연대에 기초하여 계시록 내용을 신약 교회시대 전체 속에서 이해하려는 이상주의적 해석은 계시록의 시간관과 계시록의 독자를 박해한 세력에 관한 이해에 있어서 중요한 오류가 있다. 그리고 이들은 우선적으로 계시록의 메시지를 계시록의 첫 독자의 상황에서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필자가 제안하는 것은 계시 역사의 점진적 발전을 잘 고려하는 부분적 과거론으로 '석의'를 한 후에, 현대 교회에 '적용'할 때 이상주의를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Iron sharpening iron) 부분적 과거론과 이상주의적 해석은 계시록 해석을 위해 서로 도전을 줄 수 있다.

천년주의와 관련하여, 무 천년, 후 천년, 전 천년주의이든, 서로 비난하고 배척할 것이 아니라, 모두 영감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계시록 해석에 있어서 "누구는 우리와 다르다"는 말이 불합리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우리'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군 아니면 적

107) R. Edlin,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Paper delivered during the Faculty Enrichment Seminar at Kosin University(2009. 4.7).

군이라는 편 가르기 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 대신 학문적인 토론을 통해서 다양함 속에서 일치를 추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J.E. Adams. 1966. The time is at hand. Phillipsburg: P&R.

D. Chilton. 1990. The days of vengeance: an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Tyler: Dominion Press.

R. Edlin. 2009.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Paper delivered during Faculty Enrichment Seminar at Kosin University(2009. 4. 7).

K.L. Gentry Jr. 1989. Before Jerusalem fell: dating the book of Revelation. Tyler: ICE.

W. Hendriksen. 1975. More than conquerors: an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Grand Rapids: Baker(한글판 1975년 아가페출판사).

D.E. Johnson. 2001. Triumph of the Lamb: a commentary on Revelation. Phillipsburg: P&R.

J.B. Jordan. 1999. A brief reader's guide to Revelation. Niceville: Transfiguration Press.

M.R. King. 1987. The cross and the Parousia of Christ: the two dimensions of one age-changing eschaton. Ohio: Writing and Researching Ministry.

S.J. Kistemaker. 2001. Exposition of the book of Revelation. NTC. Grand Rapids: Baker.

G.E. Ladd. 1978. A commentary on the book of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Eerdmans.

K.A. Mathison. 1999. Postmillennialism: an eschatology of hope. Phillipsburg : P&R.

F.D. Mazzaferri. 1989. The genre of the book of Revelation from a source-critical perspective. Berlin: Walter de Gruyter.

G.R. Osborne. 2002. Revelatio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Grand Rapids: Baker.

V.S. Poythress. 2000. The returning king: a guide to the book of

Revelation. Phillipsburg: P&R.

J.S. Russell. 1878 (1996). The Parousia: a critical inquiry into the NewTestament doctrine of our Lord's Second Coming. Bradford: KingdomPublications.

제임스 B. 조르단. 2005. 계시록의 구속사적 연구 (Studies in the Revelation). 그리심.

모세의 선지자적 권위(민 12)

Moses' Authority as a Prophet

신득일 (고신대학교 신학과 교수)

목 차

1. 서론 ※106
  1.1. 정경의 상태 ※106
  1.2. 본문의 상태 ※108
2. 본론: 주석적 설명 ※109
  2.1.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 ※109
  2.2. 하나님의 심판 ※112
  2.3. 모세의 기도 ※118
3. 결론: 적용 ※119